

2019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다이제스트



D E F E N S E O F J A P A N 2 0 1 9

신방위계획 대강

일본 정부의 가장 중대한 책무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리고 영토·영해·영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국가로서 일차적으로 완수해야 할 책임이며 일본이 스스로의 주체적·자주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안전보장의 근간입니다. 일본의 방위력은 이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며 평화국가인 일본의 흔들림 없는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일본의 번영에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의 변화는 가속화·복잡화하고,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 이용의 급속한 확대는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물리적 영역에서의 대응을 중시해 온 지금까지의 국가 안전보장의 모습을 근본부터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에 관한 각국의 동향



우주 작전 컨트롤 스테이션 (중국)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멀웨어 (악성 프로그램) 「와니크라이」의 협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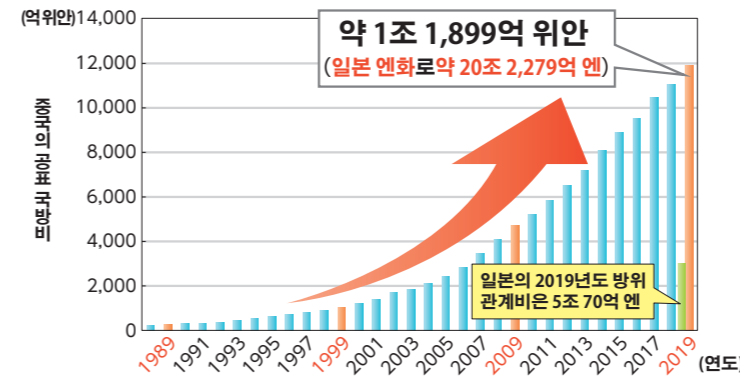
[Jane's by IHS Markit]

시리아에서 NATO군의 지휘 통제, 레이더를 방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전 장비품 「크라수하-4」 (러시아)

일본 주변에는 질적, 양적으로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집중되고 있고, 군사력의 강화와 군사 활동의 활발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활발화

■ 국방비는 높은 수준으로 증가(1부2장2절 참조)



■ 활동을 확대·활발화시키는 중국 해상·항공 전력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강화



(주 1) 상기의 그림은 편의상 평양을 중심으로 각 미사일의 도달 가능 거리를 대략적으로 이미지화한 것
(주 2) ' '는 북한의 명칭

격변하는 안전보장환경에서 일본 자신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영토·영해·영공, 그리고 주권·독립은 주체적·자주적 노력을 통해 지키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가 완수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미동맹과 각국과의 안전보장협력 강화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일본 자신의 노력 없이는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역시 일본이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방위력 강화

향후, 일본은 안전보장의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닌 진정으로 실효적인 방위력으로써 새로운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의 질과 양이 필요하고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에 있어 일본으로서의 우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구분에 의거한 발상에서 완전히 탈피해 모든 영역을 횡단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방위력(다차원 통합 방위력)의 구축을 위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의 능력 강화

영역횡단 작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의 능력을 획득·강화하고 있습니다.



X밴드 방위통신위성 (이미지)



사이버 콘테스트의 개최



전투기(F-15)의 전자전 능력 향상 (이미지)

기존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영역횡단 작전 중에서 신영역의 능력과 함께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호위함 '이즈모'



JASSM (이미지)



이지스 어쇼어 (이미지)



수송기(C-2)

지속성·강인성의 강화

평시부터 유사시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후방 분야를 포함한 방위력의 지속성·강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장비품의 유지 정비



활주로 피해 복구 기자재

한편,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철저한 합리화 없이 이러한 방위력의 강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 기반의 강화

방위력의 핵심인 자위대원의 인재 확보와 능력·사기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 최초 전투기 조종사



12식 지대함 유도탄

방위력의 강화에 있어 특히 우선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예산·인원의 배분을 고집하지 않고 자원을 유연하고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미동맹, 안전보장협력

일미동맹은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와 함께 변함없이 일본 안전보장의 기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확실히 완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일미동맹 하에서 일본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고 그 역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가는 길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에 입각해 안전보장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일미 정상 회담 '가가' 방문 (2019년 5월)

【내각홍보실 제공】



제 18회 ICS 아시아 안전보장회의 (상그릴라 대화) (2019년 6월)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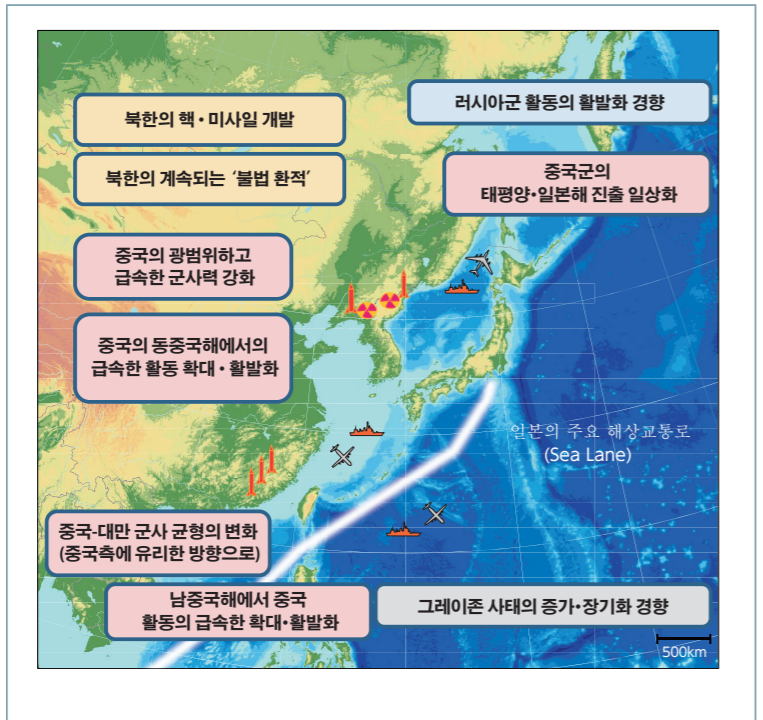
현재 안전보장환경의 특징

- 1 기존의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치·경제·군사에 걸쳐 국가 간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음. 그레이존 사태가 장기화,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하는 '하이브리드전' 수법도.
- 2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안전보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음.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중요성, 전투 양상을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
- 3 한 나라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안전보장상의 과제가 가시화되고 있음.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 우주 및 사이버 등 신영역의 안정적 이용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 지역 분쟁·국제 테러에 대한 대응.

일본 주변국 등의 군사 동향

- 1 미국은 세계 최대의 종합적 국력을 보유. 군사력의 재건, 동맹과 파트너십의 강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음.
- 2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 해상·항공 전력과 더불어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능력을 강화. 기존의 국제 질서와 상반되는 독자 주장을 기반으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활발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군사 동향은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 요인이 되고 있음.
- 3 북한은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서의 폐기는 실행하고 있지 않아 그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그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음.
- 4 러시아는 극동에서도 군사활동을 활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 동향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최근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미지)



미 국

전반적 상황

- 1 안전보장상의 최우선 과제는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음.
 - 남중국해의 지속적인 군사 거점화에 대한 초기적 대응으로 중국 해군의 림팩(RIMPAC) 훈련 참가 초청을 취소
 - 남중국해에서의 미군 함정의 항행 자유 작전 및 대만해협 통과, 폭격기로 남중국해 상공 비행을 반복적으로 실시
 - 중국군 관계부서 및 간부에 대한 제재를 발동
 -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대미 투자에 대한 감시 강화, 스파이 적발
- 2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관한 연설 중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 중인 미군 함정에 중국 해군 함정이 이상 접근한 사안을 지적. 미국 해군은 국제법이 인정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장소에서 비행항행작전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
- 3 트럼프 정권의 대(對)중국 자세는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4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 하에 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등을 이용해 확고한 적응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음.



중국에 관해 연설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안전보장·국방정책을 둘러싼 동향

- 1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판단, 2019년 6월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IPSР)'를 발표. 전투력이 높은 전력을 지역에 배치하는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확대하면서 관계를 네트워크화 할 방침.
- 2 열강의 침략을 억제해 승리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과거 70년간 최대의 연구개발 예산, 전년 대비 15% 증가된 우주 관련 예산, 전년 대비 10% 증가된 사이버 관련 예산 등을 요구).
- 3 핵전력은 2018년 2월에 '핵 태세의 재검토'(NPR)를 발표. 다양한 적대자, 위협, 상황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핵무기의 3대 축(SLBM·ICBM·전략폭격기)을 유지·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잠수형 발사형 탄도미사일(SLBM)의 일부 탄두 저출력화 등을 실시할 방침. 또한 러시아의 INF(중거리핵전력) 전폐조약 위반을 이유로 조약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동 조약의 테두리 밖에서 중거리 미사일 전략을 강화해 온 중국을 포함하여 군비 관리 필요성을 언급.
- 4 미사일 방위와 관련해 2019년 1월에 '미사일 방위 재검토(MDR)'를 발표.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중국·러시아가 기존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에 도전하는 선진적 순항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확충·근대화 및 우주 공간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
- 5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 창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시할 것을 국방성에 지시. 공군성 내에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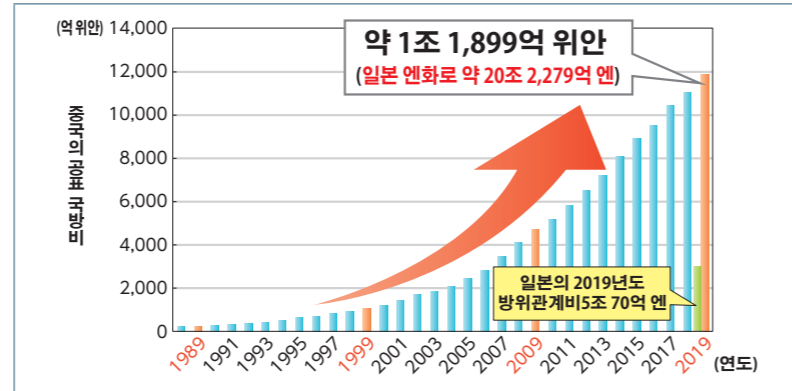
미국이 발표한 '미사일 방위 재검토(MDR)'

중국

급속한 군의 현대화

- 21세기 중엽까지 중국군을 '세계 일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투명성이 결여된 채로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 핵·미사일 전력 및 해상·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질·양을 광범하고도 급속히 강화하고 있음. 이 때 정보 우월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작전 수행 능력 강화도 중시해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 관한 능력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능력의 강화는 'A2/AD(반접근·지역거부)' 능력 및 보다 먼 곳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구축으로도 이어짐.
- 다양한 분야에서 군대자원과 민간자원의 양방향 결함을 지향하는 군민 융합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군사 이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획득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공표 국방비 추이



「스웬(군집)」 기술을 이용한 소형 무인기

[Jane's by IHS Markit]

일본 주변 해공역 등에서의 활동

- 센카쿠 열도에 관한 독자적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비롯해 중국 해상·항공 전력은 센카쿠 열도 주변을 포함해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활동을 확대·활발화시키고 있으며 행동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사안도 보이는 등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음.
- 해상·항공 전력의 태평양 및 일본해로의 진출은 최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정례화를 도모하고 있음 가능성. 활동 내용은 계속해서 질적 향상을 보이고 있어 실전적인 통합 작전수행능력의 구축을 향한 움직임도 보임.
- 남중국해에서는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항공기를 전개하는 등 해공역에서의 활동도 확대·활발해져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계속하며 기정사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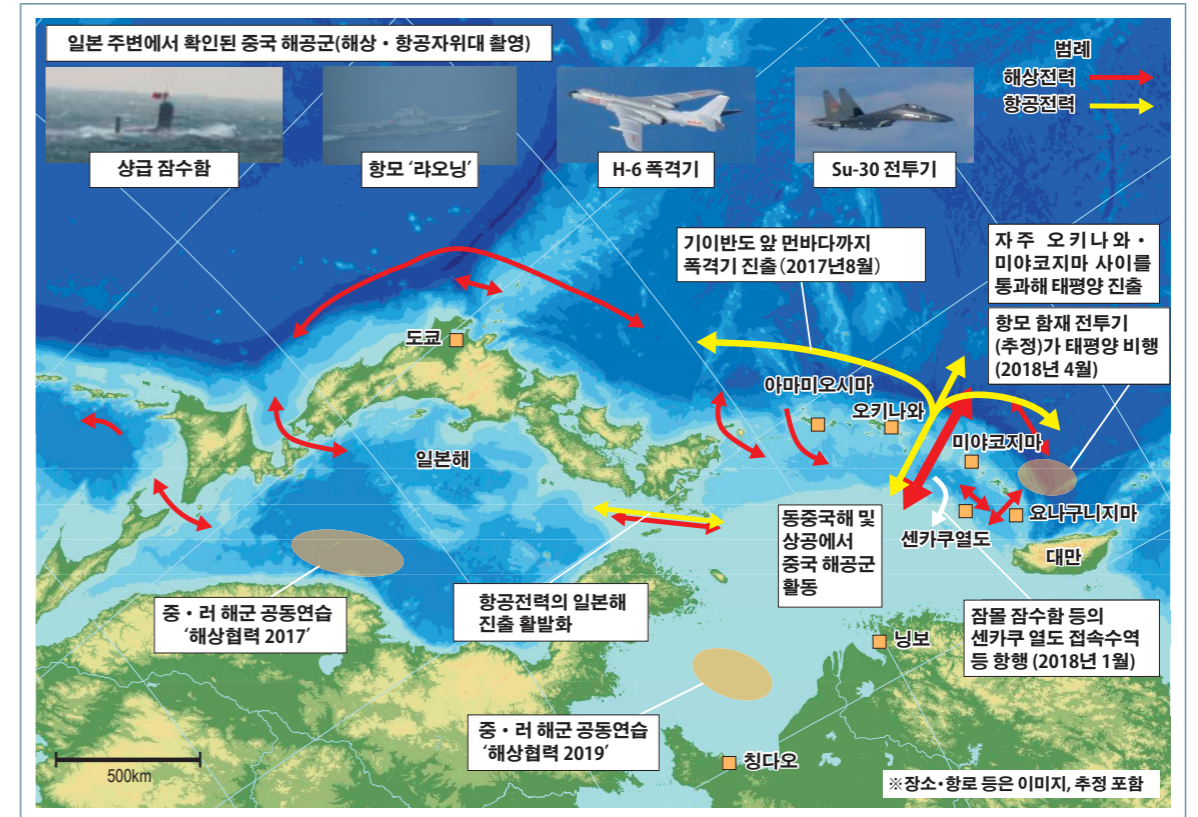


국제관함식(2019년 4월)에 등장한 렌하이급 구축함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권 내에서 처음 확인된 중국 Y-9 초계기(2019년 3월)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주요 활동 (이미지)



먼해역 등에서의 활동

- 최근 인도양 등 보다 먼 해역에서 작전수행능력을 착실히 향상시키고 있음.
-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는 중국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동 구상에 따른 인프라 건설이 중국군의 인도양, 태평양 등에서의 활동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군이 해적 대처활동 및 공동훈련 등 지역의 안정화를 통해 동 구상의 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해외 여러 나라와의 관계

- 미국이 중국을 강경한 자세로 상대하는 가운데, 중국도 자국의 '핵심적 이익' 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무역·군사 등에 있어서도 상호 견제하는 움직임이 보임.
 -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 인상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 중인 미군 함정에 중국군 함정의 이상 접근 등
-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 미국·중국 간의 군사 교류와 관련해 변화가 엿보이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음.
- '일대일로' 구상의 협력국에서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재검토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정권 출범 후 5개국에 중국과 수교를 맺고 대만과 단교.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여를 계속·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대만 독립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반복해 표명하고 있음.
- 중국·대만의 군사 균형은 전체적으로 중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해마다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함정의 미국 함정에 이상 접근 사안

[Jane's by IHS Markit]

북한

전반적 상황

- 북한은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음.
또한 핵실험 및 ICBM급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 중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를 공개. 더불어 장래적으로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대·엔진 시험장 폐기나, 미국이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표명.
- 반면
 -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 단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실전 배치하고 있음
 -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일본을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유
-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으며 여전히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임.
-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핵·미사일 개발 현황

-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 과거에 있었던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하면 이미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탄두화가 실현 단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 2019년 5월, 7월 및 8월에 총 9회, 신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일본해를 향해 발사하였음.
-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다음 4 가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① 장사정화
 - ② 포화공격을 위해 필요한 정확성 및 운용 능력 향상
 - ③ 기습적 공격 능력 향상
 - ④ 발사 형태의 다양화

「환적」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선박 간 물자의 환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회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석유 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 환적을 실시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선박 유조선 (2019년 3월)

러시아

일본 주변에서의 동향

- 북극권, 유럽, 미국 주변, 중동뿐만 아니라 극동에서도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어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극동에서 러시아군 항공기에 대한 긴급발진 횟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및 7월에는 러시아군 항공기의 영공 침범이 있었음.
- 북방영토에서는 2016년 에도로후 섬 및 구나시리 섬에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공표. 2018년에는 에도로후 섬에 전투기(Su-35×3기) 배치가 전해지는 등 군비를 강화하고 있음.
- 대규모 훈련 '보스토크 2018'는 동부 군관구를 비롯해 중앙 군관구, 북양함대 등의 부대가 참가해 구소련 시대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점이나 중국 및 몽골이 최초 참가한 점이 큰 특징임.



해상자위대에서 처음 확인한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 프리깃 (2019년 4월)



러시아의 군사 훈련 '보스토크 2018' (9월)

핵전력의 근대화·신형 무기의 개발

-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보완하고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핵전력의 근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미국 내외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 배치가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동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무기(HGV) 등 신형 무기의 개발·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이 INF전폐조약 탈퇴를 통고하는 동시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개발 의향을 표명하자 러시아는 기존의 해상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한 미사일 및 극초음속 지상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의사를 표명.



러시아가 최초 공개한 지상발사형 순항 미사일 '9M729'

군사과학기술

- 1 주요국은 미래의 전투 양상을 뒤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2 각국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음.
- 3 중국 및 러시아가 개발 중인 선진적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국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
- 4 효과적인 화력 발취가 기대되는 전자기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실험 및 배치 계획에 대한 지적도 있음.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 '차이홍-7(CH-7)'



우주 영역

- 1 주요국은 C4ISR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종 위성 능력 향상 및 발사 실시하고 있음.
- 2 각국은 우주공간에서 자국의 군사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급속히 개발. 또한 중국 및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우주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3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육해공군 등과 동격인 '우주군' 창설을 검토 중.

2018년 11월 19일, 중국의 '베이다우(北斗)' 위성 42·43호 발사



사이버 영역

- 1 군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의존도가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많은 외국 군대는 사이버 공격을 적의 군사활동을 저비용으로 방해할 수 있는 비대칭적 공격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음.
- 2 중국 및 러시아는 타국의 네트워크화된 부대의 방해 및 인프라의 파괴를 위해 군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
- 3 해외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 및 군대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다수 발생. 그 중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정부기관이 관여하였다고 지적되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멀웨어(악성 프로그램) '와나크라이'의 협력문 화면



전자파 영역

- 1 전자파 이용의 확보는 통신·레이더 장비 등의 운용을 위해 필수적. 주요국은 전자파 이용 방해(전자공격)를 적의 전력 발취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2 중국은 통신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GPS 위성 시스템에 대한 전자 방해 작전을 훈련 중이라는 지적이 있음.
- 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및 시리아에서 복수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 상대의 지휘 통제, 레이더를 방해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전 장비품 '크라수하-4(Krasuha-4)'

해양

- 1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 등에서는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상충되는 독자의 주장에 기반해 자국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2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 행위는 해상교통에 대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음.
- 3 북극해는 지금까지 전략핵전력의 전개 또는 통과 해역이었으나, 최근 해빙의 감소로 함정의 항행이 가능한 기간 및 해역이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군사력의 기동 전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대량살상무기

- 1 핵·생물·화학(【NBC】{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이동·확산은 냉전 후의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2 특히 기존의 역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어려운 테러리스트 등 비(非)국가 주체가 대량살상무기 등을 취득·사용할 우려는 여전히 높으며 탄도미사일의 확산은 지역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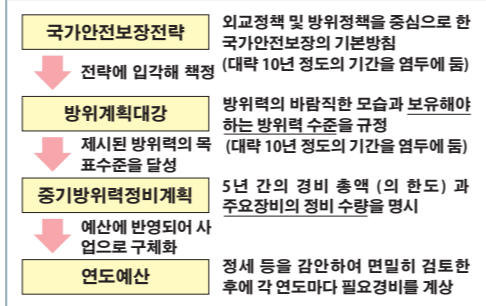
테러·지역분쟁

- 1 세계 각지에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의 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대립이 여전히 발생·계속되고 있음.
- 2 국제테러조직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중대한 과제임. 테러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위협이 확산, 심화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년 12월에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다지고 국제협조주의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 및 연도예산의 관계



신방위계획대강

- 2018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
- 일본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과 보유해야 하는 방위력 수준에 대해 규정 (대략 10년 정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모습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 세력 균형의 변화가 가속화·복잡화 되어 기존의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 이용의 급속한 확대는 육·해·공에서의 대응을 중시해 온 지금까지의 안전보장의 모습을 근본부터 바꾸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주변에는 질과 양 모두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집중해 있어 군사활동의 활발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다음과 같이 방위의 목표를 규정한다.

- 평소부터 일본이 보유한 힘을 종합해 일본에게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
- 일본에 침해를 입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
- 만일 일본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위협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

전수방위 등의 기본방침 아래, 방위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수단인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 일미동맹 및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한다.

1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 강화

- 지금까지 직면한 적 없는 안전보장환경 아래, 방위력은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인식에 의거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한다.
- 진정으로 실효적인 방위력을 위해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구축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1'을 참조



'장래의 방위력 검토 위원회'

2 일미동맹의 강화

- 일미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의 강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확대 및 주일미군 주둔에 관한 정책을 착실히 실시한다.

3 안전보장협력의 강화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에 입각해 지역 특성과 상대국의 실정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급변하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우선해야 할 사항을 가능한 한 조기에 강화한다.

1 영역횡단 작전에 필요한 능력의 강화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 해공 영역에서의 능력 및 스탠드 오프(stand off) 방위 능력, 종합 미사일 방위 능력, 기동·전개능력 등 기존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 탄약, 연료 등의 확보, 해상운송로의 확보, 중요 인프라 방호 등에 필요한 조치의 추진 같은 지속성·강인성의 강화.

2 방위력의 중심적 구성요소 강화

- 인적기반, 기술기반 및 산업기반의 강화 및 장비 체계의 재검토 등을 통한 방위력의 중심적 구성 요소 강화.

자위대의 체제 등

1 영역횡단 작전의 실현을 위한 통합 운용

-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부대 보유, 기타 태세 강화,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의 구축, 공동부대로서 해상수송부대를 보유.

2 육상자위대

-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갖추고,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기본부대, 전문적 기능을 갖춘 부대를 보유하고 평소에도 상시 지속적인 기동 등을 통해 억지력·대처력을 강화.
- 도서부(島嶼部)에 대한 침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대함 미사일 부대 및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부대를 보유.

3 해상자위대

- 신형 호위함(FFM)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호위함 부대, 소해 함정 부대 및 함재 회전익 초계기 부대의 보유 및 수상함정 부대를 편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평소의 경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계함 부대를 보유.
- 시험 잠수함 도입을 통해 잠수함 부대의 운용 효율화와 능력 향상의 가속화, 상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태세 강화.
- 해상에서의 정보 수집·경계 감시를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광역적으로 실시하고 주변 해역의 경계 및 방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정익 초계기 부대를 보유.

4 항공자위대

- 태평양 측의 광대한 공역을 포함하는 일본 주변 공역의 상시 지속적인 경계 감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경계관제 부대 외에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등 정세가 긴박한 상황의 경계 감시 및 관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증강된 경계 항공 부대로 구성되는 항공경계관제 부대의 보유.
- 높은 능력의 전투기로 강화된 전투기 부대 및 공중급유·수송부대의 보유.
- 일본 국토에서 떨어진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이나 사태가 긴박할 경우에 공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무인기 부대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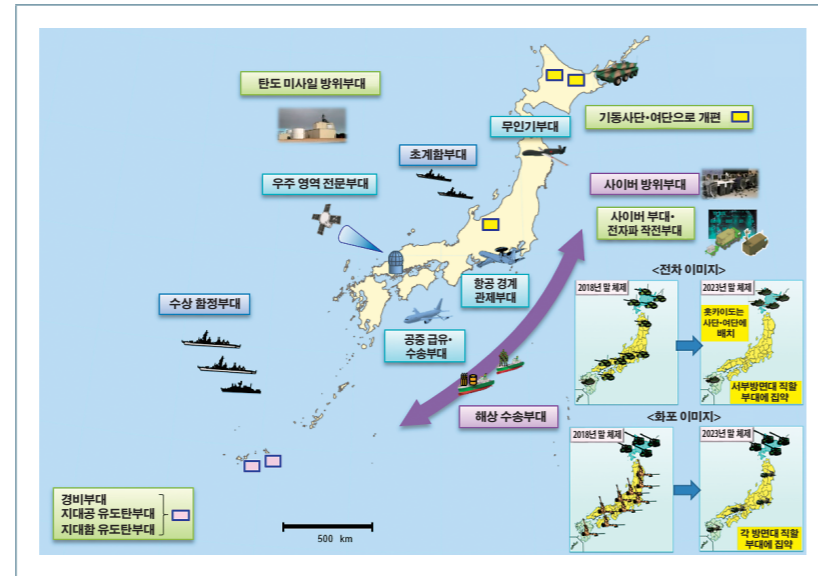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요소

- 1 훈련·연습** :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부문과도 연계한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이면서 계획적인 훈련·연습을 실시
- 2 위생** : 제일선부터 최종 후송처까지 끊임 없는 의료·후송 태세의 강화
- 3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 지방공공단체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상시의 적극적인 홍보, 지역의 요구나 정세에 부응한 세심한 조정을 실시
- 4 지적 기반** : 교육기관 등에서의 안전보장교육의 추진 및 방위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지원 양립을 위한 정책 부문과의 연계를 촉진

신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의 방위력 정비 계획 방침과 주요한 장비품의 정비수량, 경비의 총액 등을 규정.
- 영역횡단 작전이 실현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간 부대를 재검토
- 신영역·기존 영역에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 인적 기반 강화 등 방위력의 중심적 구성요소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기간부대 재검토 이미지



2019년도의 방위력 정비

- 2019년도는 신방위대강 및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시행 원년으로, 진정으로 실효적인 방위력으로서의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축을 위해 방위력 정비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2019년도의 방위력 정비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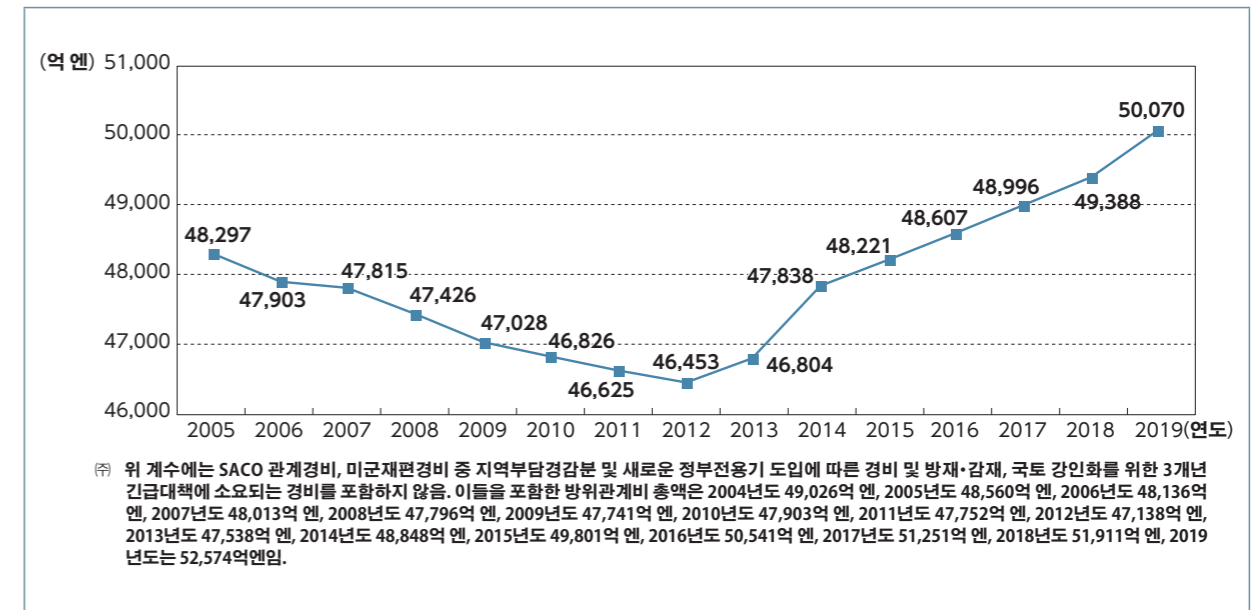
구분	주요 사업	
영역횡단 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의 우선 사항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능력 획득 강화	• 우주 상황 감시(SSA) 시스템의 취득, • 사이버 방위대의 총실화·강화, • 전투기(F-15)의 전자전 능력 향상, • 네트워크 전자전 시스템의 취득 등
	기존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 호위함·잠수함의 건조, • 전투기(F-35A)의 취득, • 전투기(F-15)의 능력 향상, • 호위함 '이즈모'의 개량을 위한 조사 연구, •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취득, •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 연구, •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의 정비 등
	지속성·강인성의 강화	• 항공 및 수중 우세 확보에 필요한 탄약(대공 미사일, 어뢰)의 정비 등
방위력의 중심적 구성 요소 강화의 우선 사항	인적 기반의 강화	•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여성의 활약과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위한 정책의 추진 등
	기술 기반 등의 강화	• 장비품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추진 등
	정보 기능의 강화	• 방위주재관 제도의 총실 등

방위관계비

방위관계비의 개요

2019년도 방위관계비는 신방위대강 및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므로, 전년도보다 682억엔 증액(전년도 대비 1.4% 증가)된 5조 70억엔이다.

과거 15년간 방위관계비 (당초 예산) 추이



평화안전법제 등의 정비와 시행 후의 자위대 활동 상황 등

평화안전법제 시행 후의 자위대 활동 상황 등

다국적 부대·감시단(MFO)에 사령부 요원 파견

2019년 4월 MFO에 사령부 요원의 파견을 결정했다.

평화안전법제에 관한 훈련 실시 상황

평화안전법제 시행 이후 방위성과 자위대는 새로운 임무에 관한 각종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약 1년간 실시된 각종 훈련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다국간 공동훈련 '칸 퀘스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훈련 (2018년 6월, 2019년 6월)
- 재외 일본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통합 훈련 (2018년 9월, 12월)
- 다국간 공동훈련 '코브라 골드 19'에서 재외 일본인 등 보호조치 등에 관한 훈련 (2019년 1월)

일본의 독자적 방위 체제

평시부터 그레이 존 사태에 대한 대응

일본 주변을 항시 계속적으로 감시

- 1 자위대는 각종 사태에 신속하고 끊임없이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영해·영공과 그 주변의 해공역에서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 2 자위대는 일본 주변 해역에서 평소 실시하고 있는 경계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이래 2019년 6월말까지 총 20번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확인하여 공표하고 있다.
- 3 환적을 포함한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프랑스가 주일미군 가데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기에 의한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미해군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및 프랑스 해군 함정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 4 2018년 12월 노토반도 앞바다(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내)에서 경계 감시 중이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 급 구축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받은 사안이 발생했다. 방위성은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최종 견해를 공표하고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방위성은 앞으로도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경계 감시 및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환적을 실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선박 유조선(왼쪽)과 선적 불명의 소형 선박(20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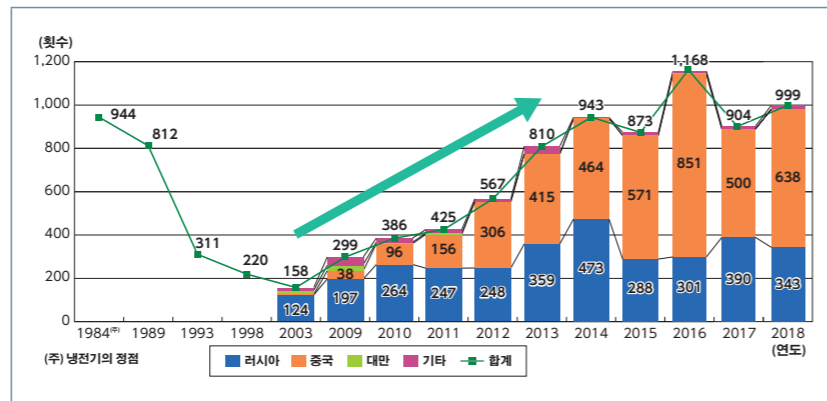


환적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한 프랑스 Falcon200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 1 항공자위대는 일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경계 관제 레이더나 조기경계관제기 등으로 탐지식별하고 영공 침범의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발견했을 경우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스크램블)시켜 그 항공기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 2 2018년도 항공자위대 항공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횟수는 999회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횟수였다. 이 중 중국 군용기에 대한 긴급발진은 전년도 대비 138회 증가한 638회,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긴급발진은 전년도 대비 47회 감소한 343회였다.

냉전기 이후 긴급발진 실시 횟수와 그 내역



도시지역을 포함한 일본 공격에 대한 대응

도시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 1 도시지역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공격에는 필요한 부대를 신속하게 기동·전개시켜 해상·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동시에 침공 부대의 접근·상륙을 저지한다. 해상·공중 우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에도 침공 부대의 위협권 밖에서 그 접근·상륙을 저지하고 만일 정거된 경우에는 모든 조치를 취해 탈환한다.
- 2 남서쪽 섬 지역의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2019년 3월 아미아시마에 경비 부대 등을, 미야코지마에는 경비 부대를 배치했다. 향후 이시카지마에도 경비 부대 등을 배치할 것이다.
- 3 도서(島嶼) 방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도서 방위용 신형 대항 유도탄 및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의 요소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
- 4 신속하고 대규모의 수송·전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송함 개량, V-22 오스프리 및 C-2 수송기 등의 도입을 통해 기동전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언 피스트 2019'에서 착륙·상륙 훈련을 실시하는 수륙양용차(2019년 1~2월)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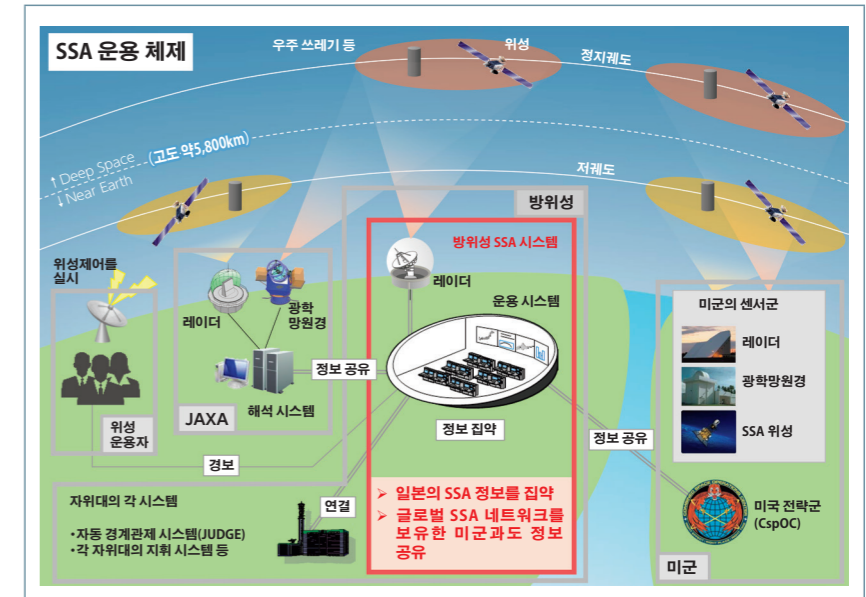
- 1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위는 현재 이지스함을 이용한 상층 요격과 패트리엇 PAC-3를 이용한 하층 요격을 자동경계 관제시스템(JADGE)으로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다층방위를 기본으로 한다.
- 2 앞으로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으로 이지스함과 더불어 이지스 어쇼어를 포함한 상층 요격이 가능해진다.
- 3 복잡화·다양화하는 공중 위협에 대처해 피해를 국한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위와 함께 방공을 위한 장비품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상시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 전역을 방호하면서 다수의 복합적 공중 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을 강화해 간다.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처

우주 영역에서의 대처

- 1 2022년도까지 우주 상황 감시(SSA) 체제 구축을 목표로 일본의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와 운용 시스템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 2 방위성·자위대는 신중기방위력 정비 계획에 기반해,
 - ① 우주 상황 감시(SSA) 체제 구축,
 - ② 우주 영역을 활용한 정보 수집, 통신, 측위 등 각종 능력의 향상
 - ③ 상대방의 지휘 통제·정보 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포함해, 우주 이용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 강화에 힘쓴다.

우주 상황 감시(SSA)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처

- 방위성·자위대는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부대에 의한 사이버 공격 대처 등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 향후에는 지금까지의 대응과 더불어 신방위대강에 의거해 유사시에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격에 이용되는 상대방의 사이버 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을 포함해 사이버 방위 능력의 근본적 강화를 도모하기로 한다.
- 2019년도에 사이버 방위대를 약 70명 증원하여 약 220명으로 확충할 것이다.



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처

- 전자파는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 범위와 용도가 확대되어 현재 전투 상황에서의 주요 영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 방위성·자위대에서도
 - 전자파 이용을 적절하게 관리·조정하는 기능을 강화
 - 전자파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 및 정보 공유 태세 구축
 - 일본 침공을 도모하는 상대방의 레이더 및 통신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능력의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상대방의 레이더 및 통신 등을 무력화시키는 네트워크 전자전 장치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처

자연 재해 등에 대한 대처

- 자위대는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협력해 이재민 및 조난 선박·항공기의 수색·구조, 방역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443건의 재해 파견을 실시했다.
- 자위대는 낙도 등의 구급 환자를 항공기로 긴급 수송(응급환자 수송)하고 있으며 2018년도 재해 파견 총 443건 중 334건이 응급환자 수송이었다.



2018년 7월 호우 발생 당시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육상자위대원 (2018년 7월)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에서 경비견을 활용해 수색 활동을 실시한 항공자위대원 (2018년 9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선박 근처에 착수해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해상자위대 US-2 (2018년 10월)

일미동맹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의의

-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한 일미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와 함께 일본 안전보장의 기축이다.
- 일미 안전보장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미동맹은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개요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은 동맹을 현대에 적합하도록 하며,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역지력 및 대처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동맹과 더 큰 책임의 공유를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미 양국의 정책 협의

1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

2019년 4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일미 ‘2+2’ 회의를 개최해 우주, 사이버 및 전자파 등 신영역의 능력 향상을 포함한 영역 횡단(cross domain) 작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 등에 일치했다.

2 일미 국방장관회담

2018년 10월 이후 누차의 일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다.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에 대해 일미 연계의 심화를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과 연계 강화
-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계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
- 후텐마 비행장의 해노코 이전을 포함한 미군 재편 계획의 착실한 진전을 위해 일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 갈 것



일미 정상의 호위함 '가가' 방문 (2019년 5월)



일미 '2+2' 공동 기자회견 (2019년 4월)



일미 국방장관회담 (2019년 8월)

일미동맹의 역지력 및 대처력 강화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 및 재해 등 발생 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중합 미사일 방공', '공동훈련·연습', '정보 수집·경계감시·정찰(ISR) 활동', '해양안전보장', '후방 지원',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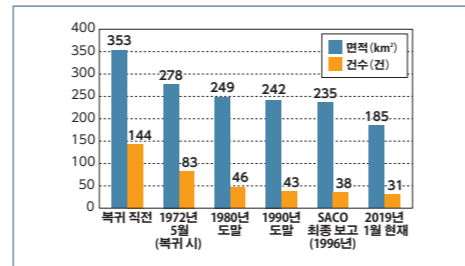
● 폭 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 확대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의 유지 · 강화를 포함해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미 양국의 영향력 강화도 고려하면서, '능력 구축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3개국 및 다국간 훈련 · 연습' 등에 대해 일미 공동의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방위 장비 · 기술 협력', '시설 · 구역의 공동 사용' 등을 추진한다.

● 주일미군 주둔의 의의

- 1 일미동맹이 일본의 방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지력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일미군의 영향력 확보 및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 확보 등이 필요하다.
- 2 따라서 일본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주둔은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핵심 요소이다.

오키나와 주일미군시설 · 구역(전용시설)의 건수 및 면적 추이



●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주둔

- 1 일본의 주일미군 시설 · 구역(전용 시설) 중 면적 기준으로 약 70%가 오키나와에 집중해 있고 오키나와 본섬 면적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후텐마 비행장이 가진 기능의 분산과 관련해, 긴급 시 항공기를 수용하는 기지 기능을 쓰이키 기지 및 뉴타바루 기지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 정비를 추진
- 3 후텐마 비행장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캠프 슈와브 남쪽의 해역에서 매립 공사를 개시
- 4 주둔군 용지 반환에 관한 주요 진척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3월 : 캠프 즈케란(니시후텐마 주택지구)(약 51 헥타르) 반환
 - 2016년 12월 : 본토 복귀 후 최대 규모 반환이었던 북부 훈련장 과반 면적의 토지(약 4,000 헥타르) 반환
 - 2017년 7월 : 후텐마 비행장의 일부 토지(시도 기도만 11 호선 용지 4 헥타르) 반환
 - 2018년 3월 : 마키미나토 보급지구의 일부 토지(국도 58 호 확폭 용지 약 3헥타르) 반환
 - 2019년 3월 : 마키미나토 보급지구의 일부 토지(제5게이트 부근의 구역 약 2헥타르) 반환
- 5 미군 오스프리 등의 오키나와현 밖으로의 훈련 이전 실시



오키나와 밖으로의 훈련 이전으로 아이바노 연습장(시가현)에 착륙하는 미 해병대 오스프리(2019년 2월)

● 오키나와 이외 지역의 주일미군 주둔

오키나와 이외 지역에서도 미군의 역지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주일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확보하는 시책을 실시. 주일미군 시설 · 구역 정리 및 주일미군 재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일미군 시설 · 구역이 미칠 영향 완화에 관한 시책

주일미군 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대전제이며, 사건 ·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미 양국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협력하고 있다.

안전보장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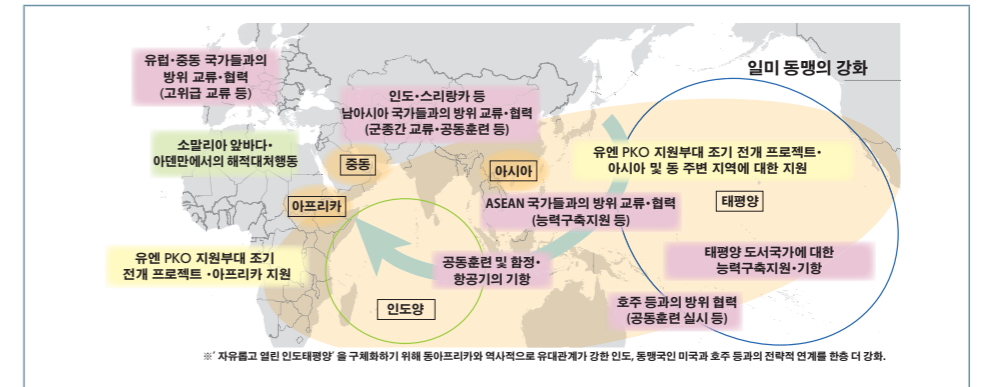
방위성 · 자위대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추진해 일본에 있어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해 갈 것이다.

● 다각적 ·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서의 대응 노력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반수 이상이 살고 있는 세계 활력의 핵심으로, 이 지역을 자유롭고 열린 '국제 공공재'로 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위성 · 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에 입각해 동 지역 각국과의 방위 협력 · 교류 등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방위성 · 자위대의 활동 (이미지)



각국과의 방위 협력 · 교류의 추진

- 1 호주 : 2018년 10월 일본 · 호주 '2+2' 및 국방장관회담, 2019년 1월 및 6월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방위 협력을 심화 · 확대할 것에 대해 확인
- 2 인도 · 스리랑카 : 2018년 10월 일본 · 인도 정상회담에서 일본 · 인도 각료급 '2+2'의 설치 및 일본 · 인도 ACSA협상 개시에 합의. 2018년 11월에는 육군중 간에서, 2018년 12월에는 공군중 간에서 첫 일본 · 인도 공동 훈련을 실시. 또한 2018년 8월에는 오노데라 방위대신(당시)이 방위대신으로는 최초로 스리랑카를 방문.
- 3 ASEAN : 일본 · 아세안 방위협력 지침 '비엔티안 비전'에 의거해 양국간 협력과 더불어 다국간 협의체의 협력을 강화. 2019년 4월에 일본 · 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같은 해 5월에 일본 · 베트남 및 일본 · 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실시
- 4 한국 : 자위항기를 둘러싼 한국측의 부정적인 대응과 레이더 조사 사안이 발생. 이러한 현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임. 또한 2019년 8월 한국 정부가 일한 GSOMIA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통고. 방위대신은 '극히 유감', '일본 · 미국 · 한국 간에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견해를 발표.
- 5 유럽 : 2019년 1월에 일본 · 프랑스 '2+2'를 개최. 2018년 10월에 일본 내에서는 최초로 일본 · 영국 육군중 간의 공동훈련을 실시
- 6 중국 : 2018년 10월 3년만에 일중 국방장관회담을 실시. 2019년 4월 해상자위대 함정이 7년반 만에 중국을 방문
- 7 러시아 : 2018년 7월 오노데라 방위대신(당시)이 방위대신으로는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해 일본 · 러시아 '2+2' 및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2019년 5월에는 도쿄에서 일본 · 러시아 '2+2' 및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 8 태평양 도서국 : 2018년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PALM), 같은 해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한다는 뜻을 언급.



일본 · 호주 '2+2'의 모습(2018년 10월)



일본 · 인도 정상회담에서 일본 · 인도 해군중 간의 협력 심화에 관한 '실시 약정' 서명 문서 교환 모습(2018년 10월)



일중 국방장관회담 모습(2018년 10월)

다국간 안전보장협력의 추진

- 1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ADMM 플러스) 및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 을 비롯한 다국간 협의체의 노력이 진전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분야에 관한 논의와 협력·교류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 2 일본도 일·아세안 방위당국 차관급회의 및 도쿄 디펜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지역 다국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아세안 협력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승함 협력 프로그램, 같은 해 11월에 국제법 심포지엄, 2019년 1월에 HA/DR(인도적 지원·재난구호)에 관한 초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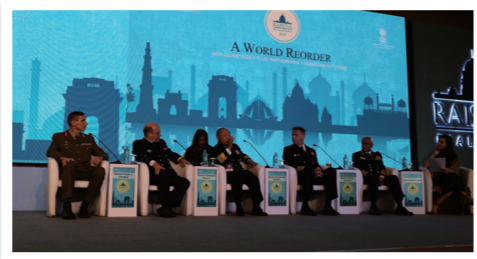
능력구축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

- 1 방위성·자위대의 능력구축지원은 2012년 개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5개국·1기관에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PKO, 해양안전보장 등의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다.
- 2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파푸아뉴기니 국방군에 군악대 신설부터 지원을 실시해, 2018년 11월 APEC에서 각국 정상 등이 모인 자리에서 동 군악대는 정제된 연주를 실시했다. 또한 베트남의 PKO, 항공 구조, 잠수 의학 등의 분야 관련 세미나, 미얀마 공군의 기상부대 설립을 위한 항공 기상에 관한 세미나 및 실기 교육, 그 외에 몽골, 동티모르,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지부티 등에서 사업을 실시했다.

파푸아뉴기니 군악대가 APEC 18에서 연주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육상자위대원 (2018년 11월)



일·아세안 국방장관회담 모습 (2018년 10월)



인도에서 개최된 다국간 포럼 「라이시나 다이얼로그」의 모습 (2019년 1월)



해양안전보장의 확보

- 1 해양국가인 일본에 있어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인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기초이며 매우 중요한 것이다.
- 2 자위대는 2009년부터 수상부대, 항공대 및 지원대를 파견해 소말리아 앞바다 및 아덴만에서 선박을 해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3 공동훈련 및 기항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연안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안국 등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능력구축지원 활동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플러스) 등 지역의 안전보장 대화 협의체에서 해양 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에 힘쓰고 있다.



'인도 태평양 방면 파견 훈련'에서 필리핀 해군과의 공동훈련 모습

우주 영역 및 사이버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

- 1 우주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으로 미군이 주최하는 우주상황감시 다국간 가상 훈련 (Global Sentinel) 및 우주 안전보장에 관한 다국간 가상훈련 (Schriever Wargame)에 참가하였다.
- 2 사이버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방위당국간 사이버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NATO와는 국제회의 및 사이버 방위훈련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외에, 2019년 3월부터 방위성에서 NATO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위한 노력

방위성·자위대는 분쟁·테러 등의 근본 원인 해결 등을 위한 개발 협력을 포함한 외교활동과도 연계하면서 국제평화 협력 활동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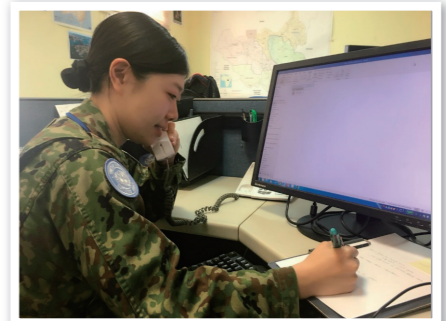
- 1 2019년 4월 시나이반도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에 대한 각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최초로 국제 연계 평화안전활동으로써 MFO에 사령부 요원 2명의 파견을 개시했다.
- 2 사령부 요원 2명은 시나이반도 남부 샤름 엘 셰이크 남부 캠프에 위치한 MFO 사령부에서 이집트 및 이스라엘 정부 기타 관련기구와 MFO간의 연락 조정에 종사하는 연락조정부 부부장 및 부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 3 이 활동을 통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본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 미국 등 다른 요원 파견국과의 연계 촉진으로도 이어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FO 사령부 요원의 현지에서의 활동 상황

유엔 남수단 임무단 (UNMISS)

- 1 남수단의 평화와 안정은 남수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므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2 UNMISS 사령부에 병참, 정보, 시설, 항공 운용의 각 막료 총 4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시설부대의 철수 후에도 계속해서 UNMISS 활동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치안 부문과 전화로 조정을 실시하는 UNMISS 사령부 요원 (정보막료)

유엔 PKO 지원부대 조기 전개 프로젝트 지원

- 1 2015년 9월의 시행훈련 이후부터 케냐에 위치한 국제평화지원훈련센터에 육상자위관 등을 교관으로 파견, 지금까지 총 7회의 시설 기자재 조작 훈련을 아프리카 8개국 211명의 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2 PKO 요원의 30% 이상이 아시아에서 파견된 것을 고려해 본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아시아 및 아시아 주변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2018년에는 베트남에서 아시아 및 주변 지역 9개국 16명의 요원에 대한 시행훈련을 실시했다.



베트남에서의 유엔 PKO 지원부대 조기 전개 프로젝트에서 중장비 조작 훈련을 실시하는 육상자위대원 (2018년 11월)

유엔 PKO 공병부대 매뉴얼의 개정

- 1 2013년 이후 유엔 PKO 공병부대 매뉴얼 책정 분과회의 의장국을 맡아 매뉴얼 완성에 기여하였다.
- 2 동 매뉴얼 개정에 즈음하여 유엔으로부터 다시 의장국 의뢰를 받아, 의장국으로서 2018년 12월 전문가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였다. 계속해서 매뉴얼 개정 작업과 동 매뉴얼의 보급을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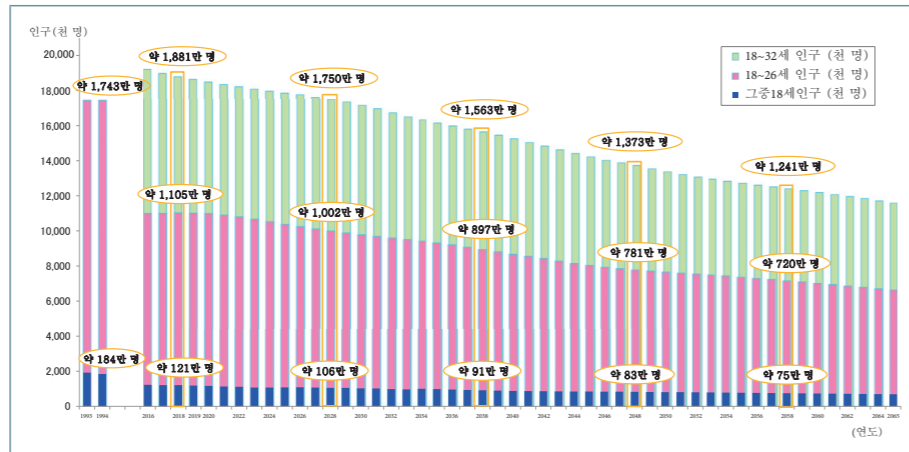
유엔 PKO 공병부대 매뉴얼 개정을 위해 도쿄에서 실시한 전문가회의 모습 (2018년 12월)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 및 위생 기능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의 강화

신방위대강에서는 자위대원의 인재 확보와 능력 향상·사기 진작은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 또한, 이는 인구 감소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방위력의 지속성·강인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의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채용 대상 인구의 추이



자위관 채용 연령의 상향

- 보다 폭 넓은 연령대에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0월 일부부사관후보생 및 자위관후보생의 채용 연령 상한선을 '27세 미만'에서 '3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또한 예비자위관 및 즉응예비자위관에 대해서도 채용·임용 기준을 확대하고 사장(병장 상당) 이하의 채용 연령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였다.

인재의 효율적 활용

풍부한 지식·기능·경험 등을 갖춘 고령 인재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 자위관의 약년정년제 연령을 2020년부터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 기간 중에 1세,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기간 중에 1세, 계급마다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생활·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향상

즉응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병영생활관·숙소의 확보 및 재건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노후된 생활·근무용 비품의 교체, 일용품 등의 소요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여성의 더 큰 활약 추진

일하는 방식 개혁

육아나 간호 등으로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모든 대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활약할 수 있도록 장시간 노동의 시정 및 휴가 취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간호 등과 양립하며 활약하기 위한 개혁

직원이 육아·간호 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청사 내 탁아시설 정비 및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취득 추진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루마 기지의 탁아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대원



위생 기능의 강화

끊임없는 의료·후송 태세의 강화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각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운용의 관점도 포함해 제일선에서 최종 후송처까지의 끊임없는 의료·후송 태세의 강화를 도모하기로 한다. 이 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남서쪽 섬 지역에서의 위생 기능 강화를 중시하기로 한다.

의무관·간호관 등의 확보, 교육·연구의 충실화·강화

신방위대강 등에서 방위외과대학교의 운영 개선 및 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의무관 충족 향상을 도모하기로 한다. 또한 전상 의료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각 자위대 공통의 위생훈련 기반 등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다.

방위장비·기술에 관한 각종 시책

기술 기반의 강화

신영역에 관한 기술이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비·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술 예측'을 재검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일본 방위에 필요한 능력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 기본적 사고방식을 나타내면서 기술적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한 '연구 개발 비전~다차원 통합 방위력의 실현과 그 후~'를 공표하였다.

장비 조달의 최적화

- 17개 품목의 프로젝트 관리 중점 대상 장비품을 선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비품 취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계약을 활용한 장비품 등의 일괄 조달을 통해 조달 비용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군 등과 조달 시기·제원을 맞춘 장비품 취득을 추진함으로써 가격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격의 투명성 향상 및 이행 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등 FMS 조달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 기반의 강인화

일본 산업 기반의 강인화를 위해 ①기업 간의 경쟁 환경 창출을 위한 계약 제도의 재검토, ②장비품 공급망의 리스크 관리 강화, ③수입 장비품 등의 유지 정비 등에 대한 일본 방위 산업의 적극적 참여, ④방위 장비 이전 3원칙 하에서 장비품의 적절한 해외 이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방위 장비·기술 협력

-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 평화공헌과 국제협력 추진 및 방위생산·기술기반의 유지·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의거해 다른 나라와의 방위 장비·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필리핀에 UH-1H 부품 등의 무상 양도와 관련해 방위 당국 간의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2019년 3월 인도를 개시하였다.
- 방위 장비·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국제 방위 장비품 전시회에 출전하는 동시에 이탈리아 등과 인관 방위 산업 포럼을 개최하였다.

UH-1H 부품 등의 무상 양도에 관한 인도식 행사 모습 (2019년 3월)



지역사회·국민과의 관계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방위성·자위대는 불발탄 및 기뢰 처리 등 민생지원으로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어려운 모집 환경 및 고용 환경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자위관의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방위 시설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방위 시설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행장을 비롯한 방위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등의 장애 방지, 경감, 완화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공문서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대처

건전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민 공유의 지적 자원인 공문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적절히 응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이다. 방위성·자위대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처도 감안해 공문서 관리 및 정보 공개 등에 관한 각종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防衛省・自衛隊
MINISTRY OF DEFENSE